

전국 시·도별 돼지콜레라 방역실태 조사결과 및 평가

1. 머리말

우리 양돈산업은 IMF체제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지난해 88,306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해 3억1천3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드리는 등 농수축산물 중 단일품목으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하여 '9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722,133톤)의 약 12.2% 정도를 일본으로 수출한 바 있다.

이렇듯 그 동안 꾸준히 일본으로 돼지고기가 수출된 여러 원인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안심, 등심 등)와 우리나라 소비자가 좋아하는 부위(삼겹살, 목등심 등)가 서로 달라 그 만큼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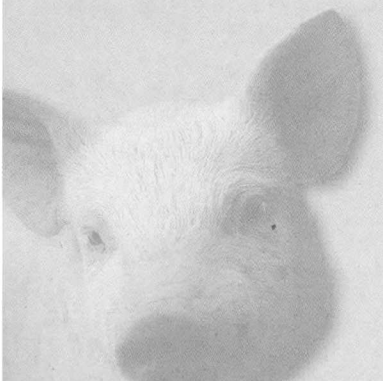
돼지고기 수출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국내 돼지고기 수급 조절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국내 돼지값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수출만이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임을 많은 양돈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커다란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 그 어려움이란 다름 아닌 바로 “돼지콜레라 근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현재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이제는 진부하리 만큼 많이 알려졌으나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list A질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는 동 질병이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돼지는 물론 돼지고기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의 99% 차지)은 '93년 이후 현재까지 돼지콜레라가 발생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금년 4월1일 부터는 3개현(가가와현, 돗토리현, 오카야마현)에서 시범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김옥경 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0년 가을부터는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을 계획하고 있어 그 시점에서는 구제역 등과 같이 돼지콜레라는 해외악성전염병으로 취급하여 돼지콜레라가 발생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부터는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할 계획으로 있다.

만일 2000년 가을 대일본 돼지고기의 수출이 일시에 중단될 경우 국내 돼지값의 폭락과 더불어 그에 따른 사료업체, 양돈기자재업체, 육가공업계, 도축업체, 동물약품업체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계에 대한 파급효과로 양돈산업 전체가 몰락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양돈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고자 검역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돼지에 100%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 검역원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이 지난 3월부터 전국의 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면담하여 돼지콜레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수의분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요청한 바 있고, 전국의 10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양돈농가의 예방접종

확인검사 즉 항체양성검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검역원내에 “돼지콜레라근절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항체검사 결과를 매월 또는 수시로 언론과 해당 시·도 및 시·군에 발표(통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콜레라 근절의 중요성을 교육·홍보 및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전국을 180개 구역으로 세분하고 각 구역별로 검역원, 축협, 양돈협회의 각 1인으로 구성되는 예방접종 확인담당제를 운영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검역원에서 검사 및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의 각 시·도별 돼지콜레라 방역실태를 평가하여 각 시·도별로 개선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항체검사 결과분석

전국의 각 시·도별 돼지콜레라 월별 항체검사결과('99. 1~5)를 보면 경기(86.2%), 강원(78.0%), 충북(78.5%), 충남(84.8%), 전북(84.9%), 전남(78.5%), 경북(77.0%), 경남(88.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위의 결과는 검역원의 4개 지원(서울, 부산, 인천, 군산) 및

전국의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우리원(돼지콜레라 근절사업단)에 송부한 혈청을 검사하여, 전체 검사두수에 대하여 항체가 80% 이상인 경우 양성두수로 판정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통계적인 숫자상으로는 경북(대구 포함)의 항체양성률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북도의 경우 관내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의 혈청 채취시 계도를 목적으로 예방접종이 미흡하다고 의심되는 농가위주로 검사를 실시하여 동 농가에 대한 계도를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제주도의 경우는 돼지콜레라 예방약 미접종 지역으로 2월 및 3월에 항체양성률이 상승한 이유는 '98년 11월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일부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99년 5월경부터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의 월별 항체양성률은 1월에는 72.7%, 2월은 75.0%, 3월은 81.6%, 4월은 82.5%이며, 5월 성적은 87.7% 까지 상승하고 있어 금년 9월까지 항체양성률이 90%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돼지콜레라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게 매월 항체양성률이 상

<표1> 전국 도별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 분포('99. 1~5월)

도별	양성률범위	1월		2월		3월		4월		5월		누계	
		농가수	백분율 (%)	농가수	백분율 (%)	농가수	백분율 (%)	농가수	백분율 (%)	농가수	백분율 (%)	농가수	백분율 (%)
강원도	80% 이상~100%	6	60.0	14	60.9	17	85.0	77	64.2	60	82.2	174	70.7
	50% 이상~80% 미만	2	20.0	4	17.4	0	0.0	19	15.8	6	8.2	31	12.6
	1% 이상~50%미만	0	0.0	3	13.0	2	10.0	15	12.5	0	0.0	20	8.1
	0%	2	20.0	2	8.7	1	5.0	9	7.5	7	9.6	21	8.5
계		10	100.0	23	100.0	20	100.0	120	100.0	73	100.0	246	100.0
경기도	80% 이상~100%	0	0.0	37	90.2	365	75.3	434	80.8	449	82.1	1285	79.8
	50% 이상~80% 미만	0	0.0	2	4.9	67	13.8	67	12.5	62	11.3	198	12.3
	1% 이상~50%미만	0	0.0	1	2.4	34	7.0	24	4.5	22	4.0	81	5.0
	0%	0	0.0	1	2.4	19	3.9	12	2.2	14	2.6	46	2.9
계		0	0.0	41	100.0	485	100.0	537	100.0	547	100.0	1610	100.0
충청북도	80% 이상~100%	0	0.0	10	83.3	12	63.2	71	71.7	62	79.5	155	73.1
	50% 이상~80% 미만	2	50.0	1	8.3	2	10.5	11	11.1	7	9.0	23	10.8
	1% 이상~50%미만	2	50.0	1	8.3	4	21.1	6	6.1	1	1.3	14	6.6
	0%	0	0.0	0	0.0	1	5.3	11	11.1	8	10.3	20	9.4
계		4	100.0	12	100.0	19	100.0	99	100.0	78	100.0	212	100.0
충청남도	80% 이상~100%	7	63.6	23	85.2	45	52.3	368	78.3	388	77.8	831	76.0
	50% 이상~80% 미만	3	27.3	3	11.1	27	31.4	60	12.8	69	13.8	162	14.8
	1% 이상~50%미만	0	0.0	1	3.7	12	14.0	31	6.6	25	5.0	69	6.3
	0%	1	9.1	0	0.0	2	2.3	11	2.3	17	3.4	31	2.8
계		11	100.0	27	100.0	86	100.0	470	100.0	499	100.0	1093	100.0
전라북도	80% 이상~100%	3	100.0	37	63.8	7	87.5	251	80.7	250	77.6	548	78.1
	50% 이상~80% 미만	0	0.0	13	22.4	0	0.0	37	11.9	38	11.8	88	12.5
	1% 이상~50%미만	0	0.0	7	12.1	1	12.5	11	3.5	13	4.0	32	4.6
	0%	0	0.0	1	1.7	0	0.0	12	3.9	21	6.5	34	4.8
계		3	100.0	58	100.0	8	100.0	311	100.0	322	100.0	702	100.0
전라남도	80% 이상~100%	0	0.0	26	47.3	31	57.4	160	75.5	156	76.1	373	70.8
	50% 이상~80% 미만	0	0.0	12	21.8	16	29.6	28	13.2	18	8.8	74	14.0
	1% 이상~50%미만	1	100.0	12	21.8	4	7.4	14	6.6	15	7.3	46	8.7
	0%	0	0.0	5	9.1	3	5.6	10	4.7	16	7.8	34	6.5
계		1	100.0	55	100.0	54	100.0	212	100.0	205	100.0	527	100.0
경상북도	80% 이상~100%	4	100.0	249	57.5	13	52.0	370	65.7	657	83.7	1293	71.4
	50% 이상~80% 미만	0	0.0	72	16.6	6	24.0	71	12.6	51	6.5	200	11.0
	1% 이상~50%미만	0	0.0	91	21.0	5	20.0	60	10.7	52	6.6	208	11.5
	0%	0	0.0	21	4.8	1	4.0	62	11.0	25	3.2	109	6.0
계		4	100.0	433	100.0	25	100.0	563	100.0	785	100.0	1810	100.0
경상남도	80% 이상~100%	45	47.4	3	100.0	152	73.8	319	82.0	913	88.7	1432	83.2
	50% 이상~80% 미만	29	30.5	0	0.0	37	18.0	32	8.2	48	4.7	146	8.5
	1% 이상~50%미만	17	17.9	0	0.0	12	5.8	22	5.7	44	4.3	95	5.5
	0%	4	4.2	0	0.0	5	2.4	16	4.1	24	2.3	49	2.8
계		95	100.0	3	100.0	206	100.0	389	100.0	1029	100.0	1722	100.0
전국(제주도 제외)	80% 이상~100%	65	50.8	399	61.2	642	71.1	2050	75.9	2935	83.0	6091	76.9
	50% 이상~80% 미만	36	28.1	107	16.4	155	17.2	325	12.0	299	8.5	922	11.6
	1% 이상~50%미만	20	15.6	116	17.8	74	8.2	183	6.8	172	4.9	565	7.1
	0%	7	5.5	30	4.6	32	3.5	143	5.3	132	3.7	344	4.3
소계		128	100.0	652	100.0	903	100.0	2701	100.0	3538	100.0	7922	100.0
제주도	80% 이상~100%	0	0.0	1	1.6	0	0.0	0	0.0	0	0.0	1	0.4
	50% 이상~80% 미만	0	0.0	0	0.0	1	1.3	1	0.8	0	0.0	2	0.7
	1% 이상~50%미만	2	10.0	30	47.6	37	47.4	52	41.9	0	0.0	121	42.5
	0%	18	90.0	32	50.8	40	51.3	71	57.3	0	0.0	161	56.5
계		20	100.0	63	100.0	78	100.0	124	100.0	0	0.0	285	100.0

승하고 있는 추세는 그 동안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 축협, 각 시·도(시·군) 및 언론에서 적극 홍보하여 양돈농가의 방역의식이 크게 제고된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지난 5월 22~23일에 축산신문에서 전화로 전국의 양돈농가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결과가 97.8%로 나타나 검역원의 검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항체양성을 범위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1월말 50.8%에서 1월~5월말(누계) 현재 76.9%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예방접종시기 및 방법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되나 5월말 현재 기준 80%미만이 18.7% 및 미접종 농가가 4.3%로 나타나 이러한 미흡한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콜레라 방역취약 특별관리지역은 경기 용인·포천·양주·파주, 충남 홍성·논산, 전북 익산·김제, 경남 하동 등 9개 지역으로 항체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은 1~5월까지(누계) 84.0%~90.0%로 일반지역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시·군 및 관련단체에서 양돈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검역원에서는 돼지콜레라 방역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해 해당지역 관할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해 항체검사 및 바이러스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지역담당자 출장결과 분석

검역원에서는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로 지역담당자가 담당 지역을 1주일 동안 현지에 출장하여 양돈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성 및 실시방법 등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매월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 현재 방문완료한 농가수는 11,677농가로 검역원 담당자가 파악한 전국의 실농가수(23,319농가)의 50.1%를 점검하였다.

각 시·도별 점검결과 세부 내역을 보면 정부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인지도를 상중하의 3단계로 구분했을 경우 충북(78.9%), 경기(75.1%) 및 경북(74.6%)이 비교적 높고 예방접종을 2회까지 실시하는 농가 비율도 경기(71.5%), 충북(63.0%) 및 경북(75.0%)이 높아 향후 항체검사 양성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방약을 미접종하는

농가비율이 전남(44.8%), 전북(51.1%) 등이 높아 해당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돼지콜레라 방역팀을 설치운용, 도 자체의 지역담당제를 실시, 양돈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농가 출하시 예방접종 증명서가 100% 제출되고 있으며, 돼지수송차량에 대한 세척 및 소독시설 미설치 도축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어 향후 항체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맺는말

일부 양돈업계에서는 대일수출이 금지될 경우 우리 양돈산업이 정말 망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수출을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양돈농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농어민신문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증단에 따른 영향을 100% 받을 경우 9조2천6백45억원에서 최소 20%의 영향을 받을 경우 1조8천5백29억원의 양돈관련산업에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 97년 3월 10일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액이 무려 8조9천억원(대만 행정원의 추정자료)이며, '99년

현재 사육두수 37%, 사육호수가 32% 감소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중단시 수출물량의 내수시장으로의 변경에 따른 물량적체로 돼지가격의 폭락(30~50%)과 양돈농가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져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양돈업을 포기할 것이며, 전업농가의 경우에는 부도가 속출할 것이며, 소비자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보다는 미국, 덴마크 등으로부터 수입한 돼지고기를 선호할 것이므로 양돈농가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양돈관련산업인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 육가공업계 등의 연쇄 부실화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축산산업은 정부의 축산정책자금지원으로 시설과 규모를 늘려 수출 및 내수시장을 키워 왔기 때문에 수출중단시 기존에 투자된 자금의 손실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돼지콜레라의 근절은 꼭 이루어야만 하는 국가적인 목표인 것이다.

돼지콜레라 근절의 목표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상기 분

석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농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체양성률도 상승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양돈농가의 경우 여전히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르게 접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 동안 민간단체인 (사단법인)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의 주관으로 전국의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으나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돼지콜레라 근절시한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고 동절병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사육규모 100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하여 100% 예방접종 실시 및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민·관 합동으로 예방접종팀을 구성하여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99. 7월부터 4회에 걸쳐 일제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최근 돼지가격이 지육기준으로 3,200원/Kg 선을 유지하고 이 가격은 지난 10년간의

최고수준이라 할 정도이다. 그러나 양돈농가는 돼지가격이 높다고 좋아해서는 않된다.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가 높은 시세를 이용하여 오제스키병에 걸린 떨이돼지를 마구 팔아 전남 나주 및 울산에서 혈청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등 방역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전국의 양돈농가에서는 떨이돼지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지금 당장 돼지가격이 좋다고 마구잡이식으로 구입하면 돼지콜레라 및 오제스키병 등으로 인한 손실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검역원장으로서 필자는 지난 3월부터 전국의 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만나면서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돼지콜레라 근절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어 돼지콜레라 근절에 관련한 검역원의 주된 역할인 항체·항원검사 지속 실시('99년도 검사물량 : 40만두) 및 지역담당체를 더욱 강력 시행할 것임을『월간양돈』의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약속드리는 바이다. **양돈**

